Abstract

(세션 2) 항만 혁신과 지속가능성

노엘 하세가바, 롱비치항만청 부청장

친환경 항만 건설을 위한 롱비치 항의 20년 여정

키워드: 녹색항, 환경 지속가능성, 탈탄소화, 협업

롱비치 항은 지난 20년간 친환경 항만 전환을 선도해왔다. 2005년, 롱비치 항은 혁신적인 녹색항 정책(Green Port Policy)을 수립 및 시행하여 화물 처리 능력을 확대하면서도 배출가스를 줄이고 항만 운영이 주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적 조치의 기본 틀로 삼아왔다. 이후 이 정책은 청정대기 행동계획 (CAAP)으로 발전하여, 롱비치 항은 전 세계 어떤 항만보다도 원대한 배출 및 탄소 저감 목표를 설정했다.

2006년부터 롱비치 항은 인접한 LA항을 비롯해 수많은 공공·민간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CAAP를 이행해왔다. 그 결과, 컨테이너 물동량이 36% 증가하는 동안 디젤 미세먼지는 92%, 질소산화물은 71%, 황산화물은 98% 줄이는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업계, 노조, 정부 파트너들의 협력 속에 롱비치 항은 2030년까지 화물 처리 장비의 무배출 전환, 2035년까지 트럭의 무배출화를 달성하기 위한 궤도에 올랐고 운영 효율성과 고객 서비스 측면에서 글로벌 리더로서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롱비치 항만청의 성공은 무엇보다 고객과 산업계, 노동계, 정부, 지역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협력에 달려 있다. 동시에 혁신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확고한 결의가 절실하다. 무배출 운영으로의 전환은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으며 민첩하고 안전하며 가치사슬을 강화하는 미래형 항만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과제이다. 이를 위해 롱비치 항은 무배출 전환뿐 아니라 물리적·디지털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고 철도 수송 능력을 확충하며 터미널의 밀도를 높이고 전기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소 생산 및 유통에 투자하고 캘리포니아 주를 지원하기 위해 해상 풍력 재생에너지 발전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롱비치 항은 항만 운영의 변혁과 함께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인력을 재교육하고 역량을 강화하며 학계 및 고등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항만 관련 직종으로 이어지는 인재 파이프라인과 경력 경로를 마련 중이다. 이처럼 롱비치 항은 총체적이고 협력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명실상부 미래 항만을 건설하며 항만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선도하고 있다.